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최근 경기동향을 중심으로 -

신 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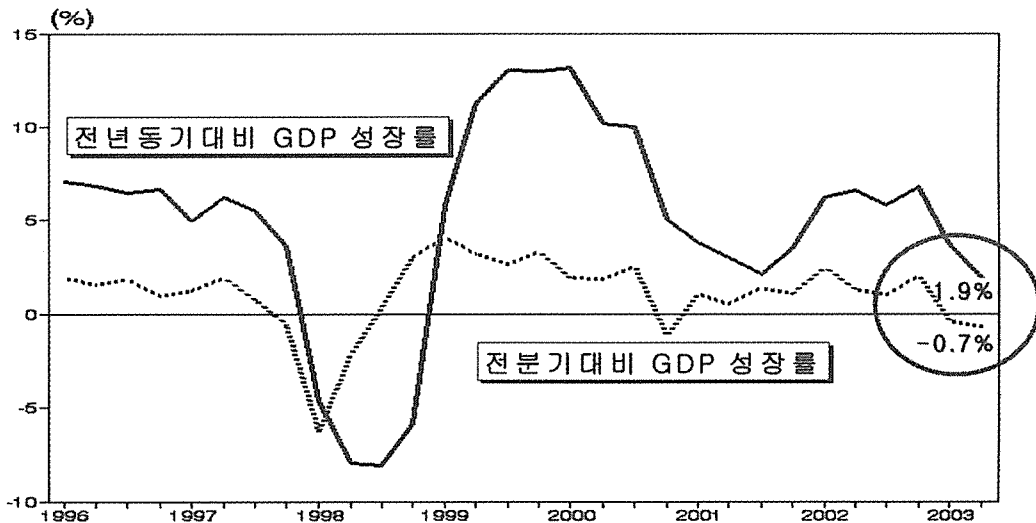
〈KDI 거시경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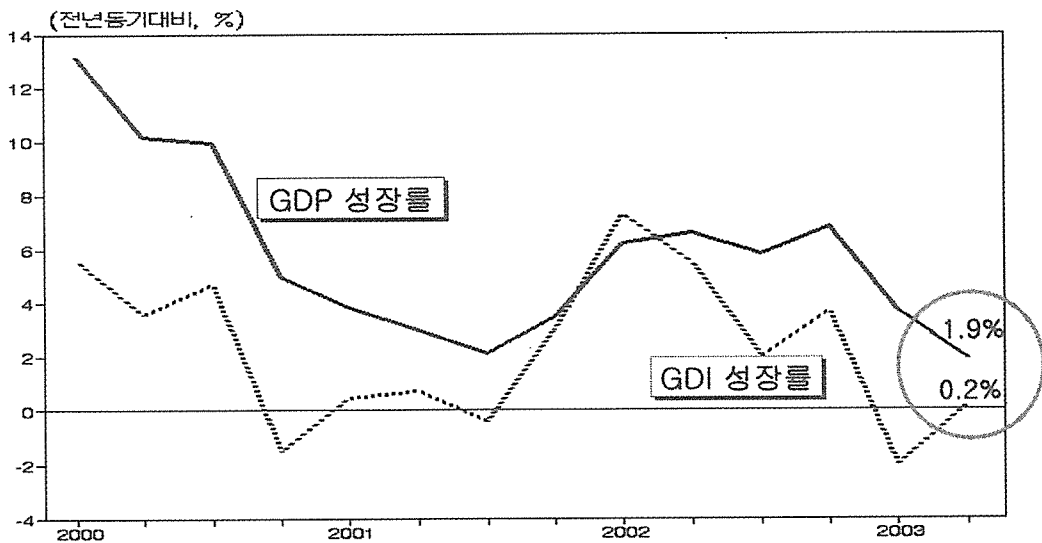
I. 최근의 경제동향

현재 우리경제는 내수침체 및 파업의 영향으로 실물지표상의 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진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IT관련 산업의 회복이 가시화

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내총생산(GDP)은 금년 2/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9% 성장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0.7% 감소하여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전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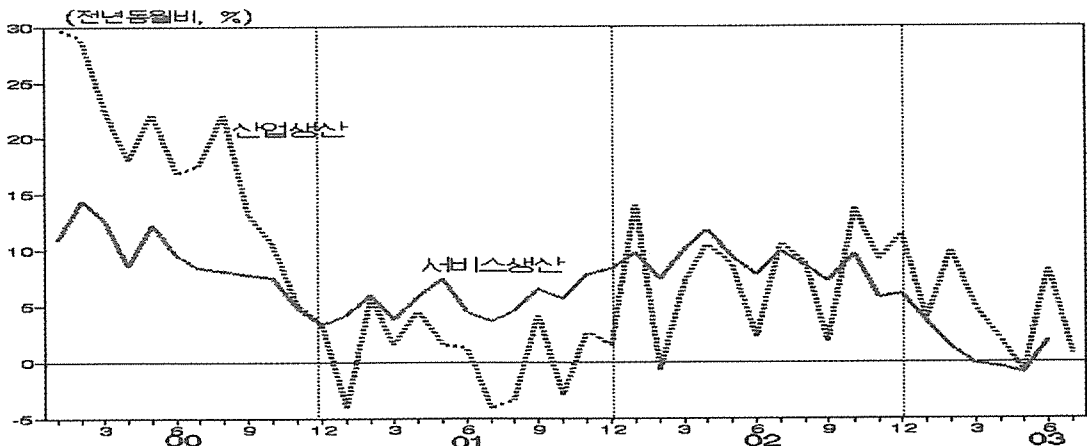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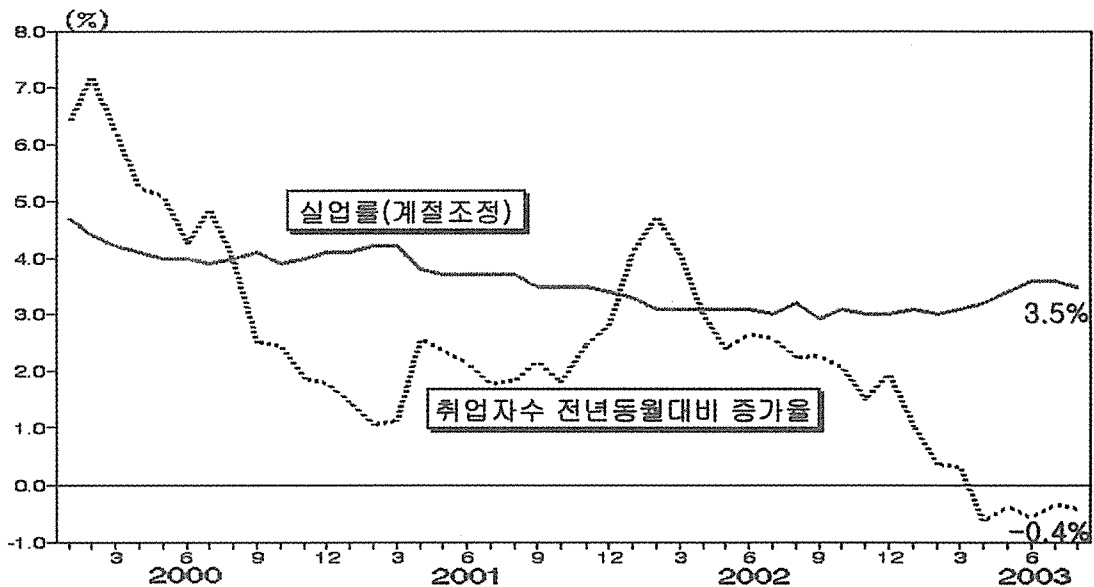
더욱이 체감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총소득(GDI)은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9%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산업생산은 7월중 자동차 부문의 파업영향이 크게 반영됨에 따라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경우에는 6월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7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에 비해 조업일수가 1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자동차 분규 등의 영향으로 0.7%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전월(8.4%)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나, 자동차부문을 제외한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으며 계절조정 전월 대비 생산은 자동차부문을 제외할 경우는 0.1% 증가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제품출하의 경우 7월중 내수출하는 -3.4%의 감소를 기록한 반면 수출출하는 자동차파업에도 불구하고 10.7%의 증가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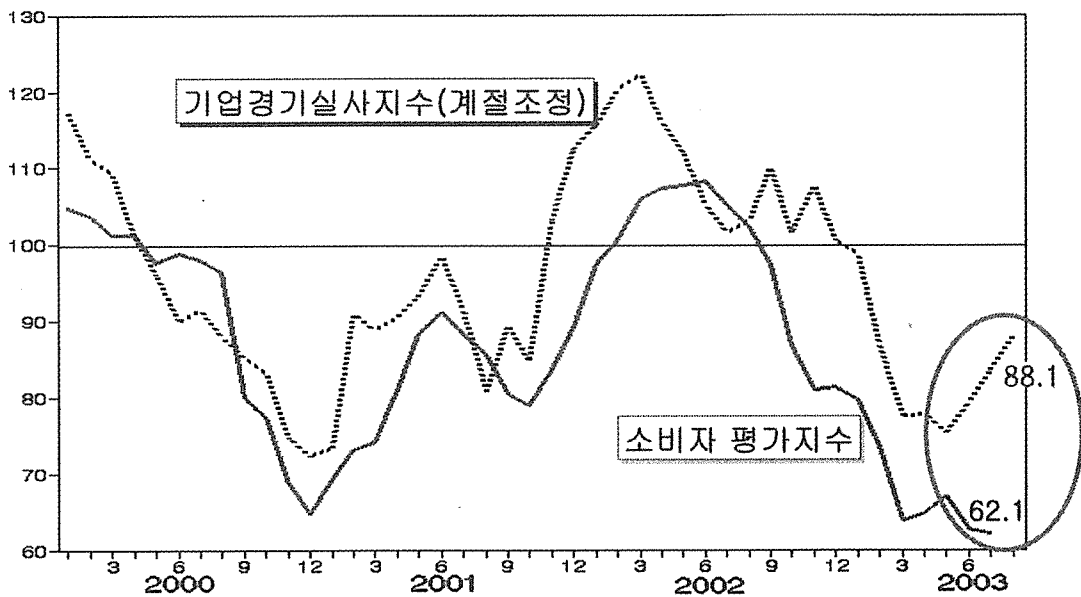




하여 내수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극심한 내수침체의 지속에 따라 고용침체도 지속되고 있으나 실업률 및 취업자수의 측면에서 평가된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7월중 실업률

은 계절조정기준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인 3.6%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는 5~6월의 0.0%에서 7월에는 0.4%의 소폭 상승으로 반전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도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는 한편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한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완화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 기대지수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및 기업실사지수 등 경기선행지표들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기대지수는 7월중 90.8을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 7월 중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에 비해 0.1%p 증가하여 2개월 연속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전경련의 기업실사지수도 전반적으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수출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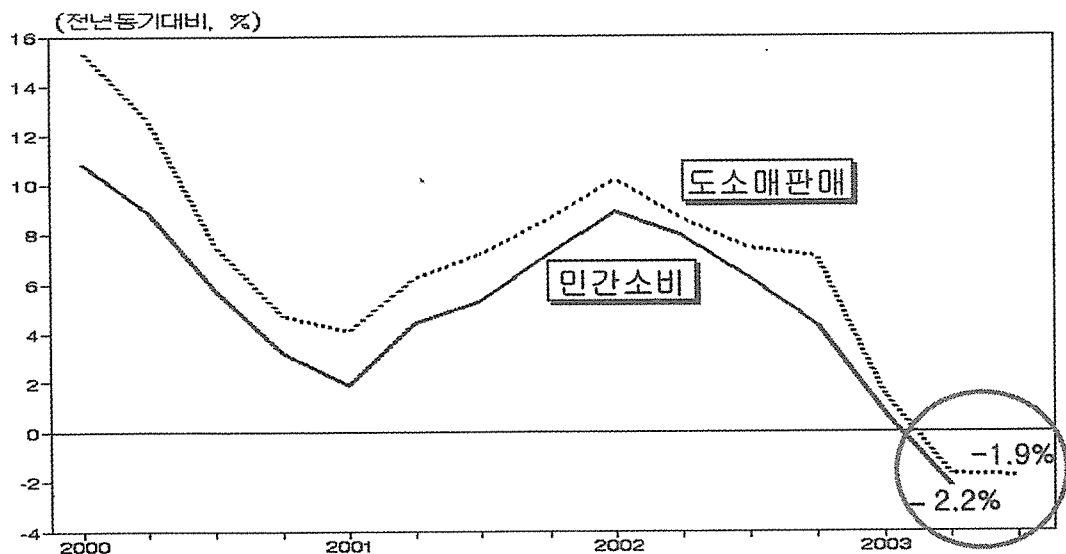
II. 경기침체에 대한 진단

이러한 최근의 경기침체는 민간소비와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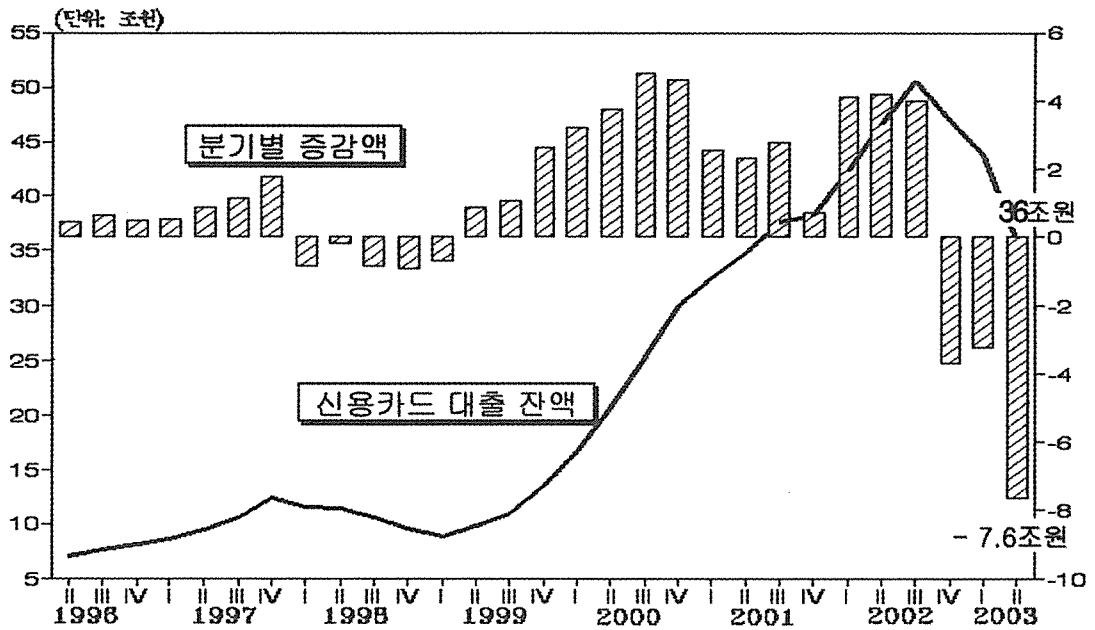
투자 등 내수의 부진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은 SARS의 충격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한 수출이 회복되면서 8월중에 일부 산업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건설투자를 제외한 내수부문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하강을 주도해 온 민간소비의 경우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나 3/4분기 이후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4분기에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하였으나 7월중 도소매판매는 자동차파업의 영향을 제외하면 전월과 비슷한 정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어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민간소비의 위축은 가계신용의 조정에 상당부분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계신용증가율은 작년의 35% 수준에서 금년 6월에는 10.5%까지 하락하였으며, 민간소비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추정되는 신용카드대출은 작년 4/4분기 이후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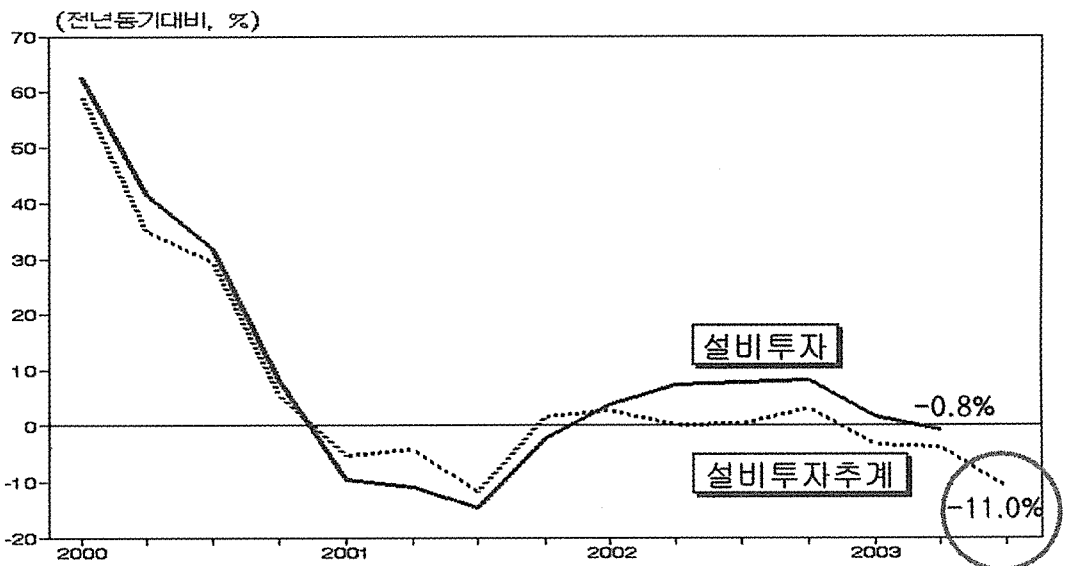
*2003년 3분기 도소매판매는 7월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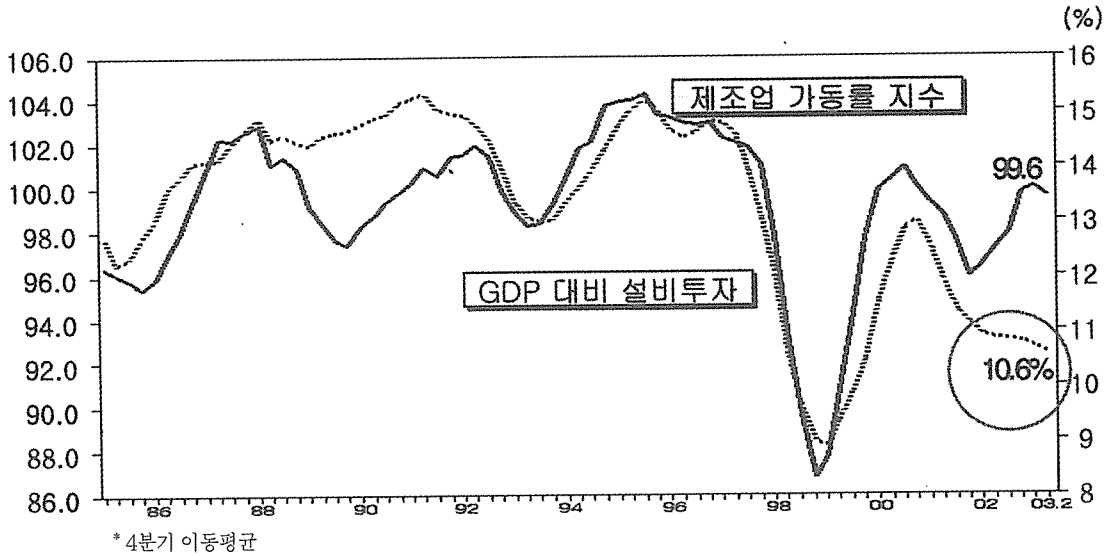
분기의 신용카드 대출잔액이 이미 2001년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을 만큼 가계신용의 조정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유동성 제약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

정된다.

민간소비의 위축과 더불어 설비투자도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금년 2/4분기에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0.8% 감소하였으며, 7월중



* 2003년 3분기 설비투자추계는 7월 수치임



설비투자 추계는 전월의 증가세에서 큰 폭의 감소세(-11.0%)로 반전하였을 뿐 아니라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13.1%의 감소세

를 보여 설비투자가 조만간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설비투자 침체는 전통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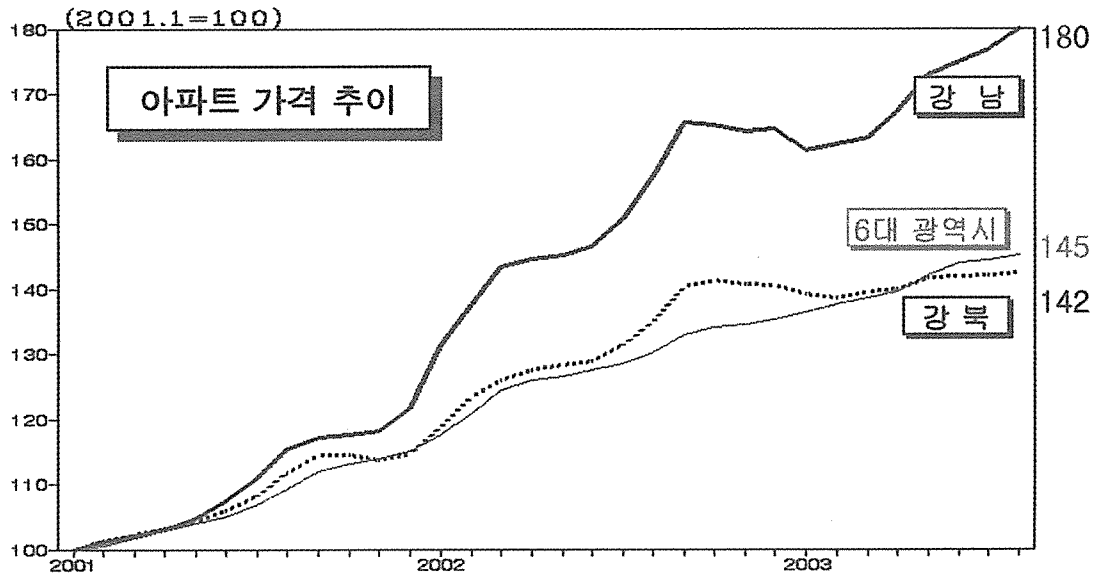
【표 1】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 %)

	비중 ¹⁾	2001	2002					200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5월	6월	7월
건설투자	1.00	5.3	9.7	3.8	-4.6	6.0	3.3	8.1	7.2	-	-	-
(계절조정)		(-)	(1.0)	(-1.1)	(-2.9)	(8.3)	(-)	(3.5)	(-1.1)	-	-	-
건물건설	0.53	9.6	20.8	16.0	10.7	11.1	14.4	14.0	12.8	-	-	-
기타건설	0.47	1.7	-6.9	-6.6	-17.2	2.1	-6.7	-3.3	1.3	-	-	-
건설기성액	1.00	10.0	7.9	2.2	-2.8	8.0	3.7	16.0	15.8	15.9	18.6	17.4
공공부문	0.38	4.4	-3.9	-10.2	-15.5	-10.8	-10.5	-6.0	0.0	0.9	2.6	6.7
민간부문	0.58	14.6	15.1	10.0	4.5	21.1	12.7	30.5	26.8	26.0	29.8	25.4
국내건설수주	1.00	22.1	77.5	10.1	6.6	12.7	21.3	-2.0	56.3	37.0	121.3	80.3
공공부문	0.29	49.5	34.1	-20.7	-0.5	-13.4	-7.6	-22.4	29.2	6.0	55.5	-6.7
민간부문	0.66	10.6	104.0	47.7	6.7	31.3	43.0	2.1	58.5	54.4	125.4	119.4
(제조업)	(0.05)	-5.2	1.1	51.5	-21.2	74.4	20.6	7.0	-16.2	49.3	-36.6	108.4
건축허가면적	1.00	20.6	102.1	45.8	22.4	24.1	42.0	3.4	21.0	-27.6	156.2	31.8
주거용	0.41	15.9	110.1	13.6	-6.0	8.7	19.8	-8.7	50.2	2-20.9	241.8	73.1
상업용	0.36	37.1	197.8	123.1	68.7	41.0	92.6	-3.2	-0.6	-38.9	113.3	4.1
공업용	0.11	16.2	-0.7	24.5	9.3	20.6	13.5	21.2	-14.4	-28.2	31.9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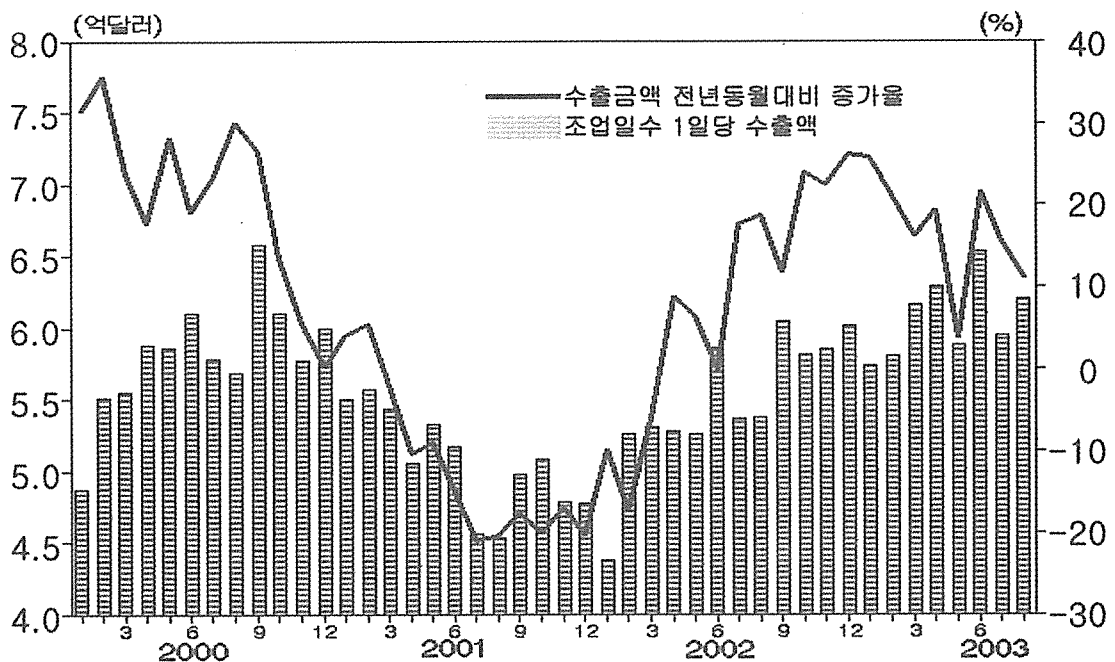
주: 1) 비중은 2002년 연간 기준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우리경제의 향후 성장잠재력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설비투자의 비용측면인 이자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

업의 가동률 지수 및 수출 증가율이 높아져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기업들이 인식하는 설비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낮거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우리경제 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향후 상당기간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건설투자는 내수부문중 유일하게 호조세를 지속하여 왔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주거용 건설이 상반기동안 호조세를 주도하였다. 7월중에도 건설투자 관련지표들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국내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들의 증가세도 전월에 비해서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투자의 호조가 부동산경기, 특히 아파트가격의 급등을 수반하며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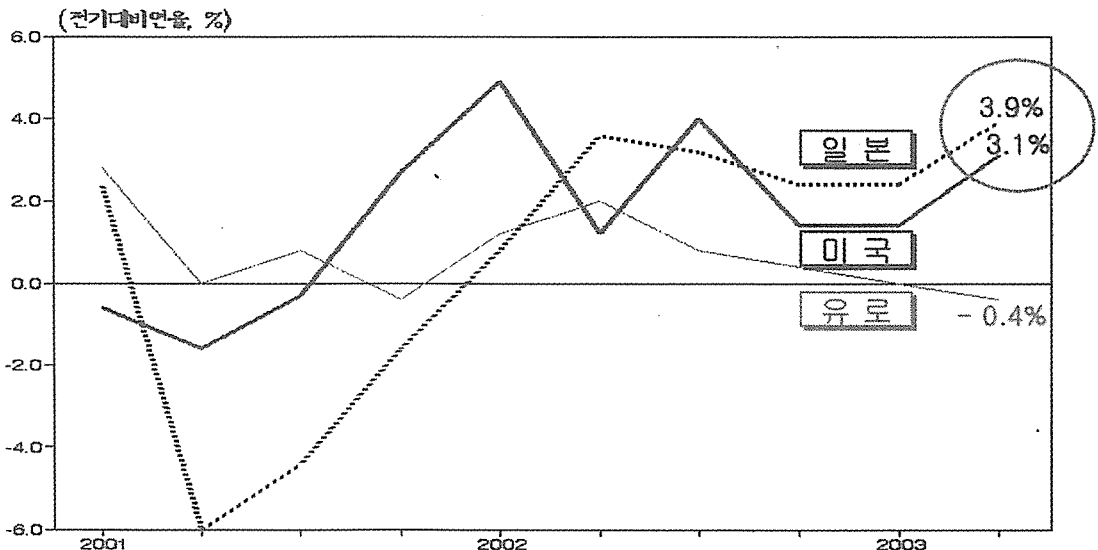
수출은 안정적인 호조세를 유지하여 상반기 동안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8월중 수출은 자동차 산업과 화물연대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IT관련 제품의 수출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계절조정 일평균 수출액이 전

월에 비해 3.6% 상승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 SARS의 충격에서 벗어난 중국으로의 수출이 8월중 전년동월대비 60%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Ⅲ.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먼저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선진국경제는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확대되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경제는 경기선행지표들의 개선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 및 투자지표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부진이 아직 지속되고는 있으나, 소비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과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며, 2/4분기 경제성장률도 당초 잠정치인 2.4%보다 0.7%p 높은 3.1%를 기록함에 따라 미국경제의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경제의 경우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지



	2003	2004
세계경제	3.2	4.1
미국	2.6	3.9
유로	0.5	1.9
일본	2.0	1.4
중국	7.5	7.5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IMF

만 수출호조세에 힘입어 생산과 설비투자가 확대되는 등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2/4분기 GDP도 전기대비 연율 3.9%를 기록하였다.

국제기구들도 2004년의 세계경제가 미국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2003년의 성장률보다 1%p 정도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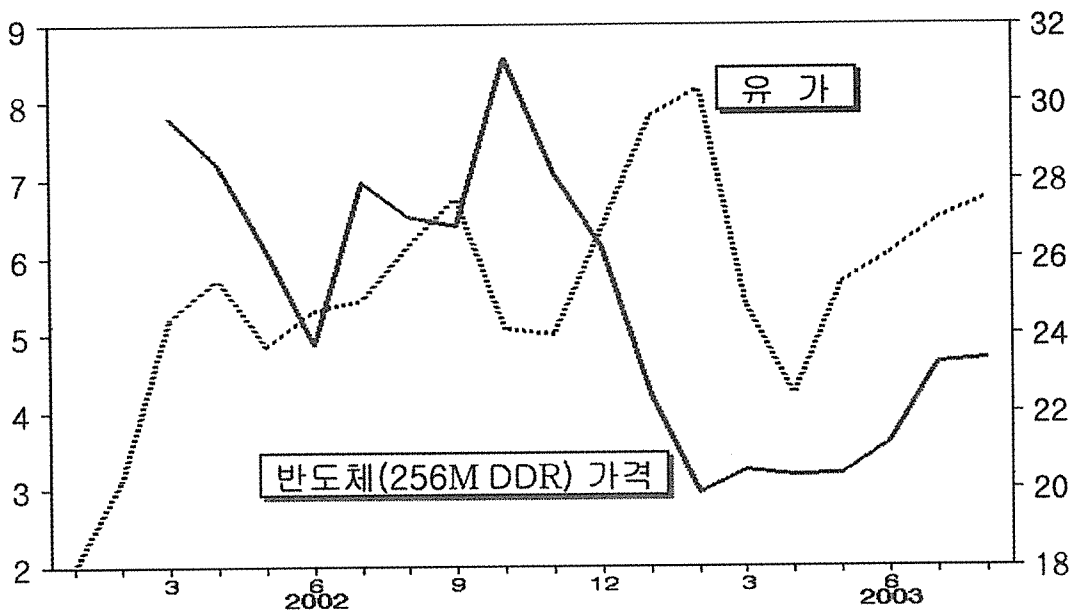
국제유가는 4월 이후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배럴당 24~28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이라크 전쟁의 종결 이후 안정되던 국제유가는 선진국의 원유재고 감소, 이라크 생산 확대 차질 및

OPEC의 감산 등으로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의 원유재고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이라크의 원유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안정될 전망이다.

반도체가격은 IT 경기의 회복조짐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완만한 상승세는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5%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엔화의 대미달러 강세도 동시에 진행되어 원/엔환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화당국은 8월중 콜금리를 3.7%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당분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한 바 있으며,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1차 추경예산 4.2조원에 더하여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2차 추경예산 3조원을 편성·집행할 예정이다.



IV. 향후 전망

이러한 대내외여건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동안의 경기하강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경기하강이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회복가시화에 따라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편 민간소비는 가계신용의 조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지면서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상반기 동안의 경기하강이 당초 예상을 상회하였고 강우일수의 증가 및 태풍으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감소, 제조업 및 건설업 생산 차질 등의 영향을 감안할 때 연간 성장률이 3%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수출호조에 기인하여 3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유가안정과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3.4%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내수부문도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회복에 따라 건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입도 내수의 부분적 회복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강화가 지속됨에 따라 금년의 2차 추경예산의 효과가 내년 상반기 동안 지속되더라도 금년까지의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신용의 조정이 점차 마무리되고 교

역조건의 개선 및 소득증가세에 따라 완만히 회복될 전망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소, 수출증가, 금년의 투자부진에 대한 반등 등의 요인에 기인하여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금년의 투자부진과 경제주체의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저하를 초래한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 내외로 추정되고 있는데, 설비투자의 부진 및 경제주체의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저하는 우리경제의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상 한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크게 자본 및 노동 등 투입생산요소의 증가율과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비투자의 부진은 경제의 자본스톡의 증가를 둔화시켜 잠재성장률 저하의 요인이 되며, 경제주체의 경제에 대한 신뢰 저하가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을 하여 잠재성장률을 낮추게 된다. 경제구조 개혁과 대외개방 등 경제제도의 향상이 늦어지는 경우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 대로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국내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인 경기안정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